

모바일 과학기술 영상 콘텐츠의 유형과 스토리텔링 전략 : 활동형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Type and strategy of storytelling in mobile video contents about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ed on activity-centered video on YouTube

김혜영, 유동환
건국대학교

Kim hye-yung, Yoo dong-hwan
Konkuk Univ.

요약

논문은 국내 모바일 과학기술 영상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유튜브 채널의 글로벌 선도그룹의 유형과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였다. 구독자 순위를 기준으로 상위 22개의 채널을 맥락과 활동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언어사용이 적고 역동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활동 중심의 채널들을 다시 4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4개 유형을 중점으로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여 킬러콘텐츠 제작 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 서론

영상 콘텐츠 산업은 모바일 영상의 급성장에 따라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영상시청에서 모바일을 90% 이상 이용하는 ‘모바일 온리’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바일에서 인기를 얻은 콘텐츠가 지상파로 진출하고, 전통매체 보다 모바일에서의 광고 비중을 늘리는 등 방송 프로그램의 유통과 광고 채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1]. 유튜브(YouTube)는 모바일 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큰 사용자 규모를 가진 플랫폼으로 사업 안정성과 규모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로 유튜브 중심으로 전체 영상 콘텐츠 사업이 재편될 것이라는 ‘유튜브 온리’까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유튜브 주도의 동영상 시장 점유율 급상승 추세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발표한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에서 콘텐츠산업을 핵심유형으로 파악하고, 원천 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을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였다[2]. 정책추진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기술 문화 콘텐츠 창작과 크리에이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산업 콘텐츠를 위한 전 시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튜브 창작 기획전을 개최하여, 과학기술을 소재로 하는 국내 유튜브 채널인 ‘킵블’, ‘과학쿠기’, ‘콩돌이 프로덕션’이 참여하였다.

모바일 과학기술 영상 콘텐츠는 수요와 정책적 지원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예견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집중적 분석과 방향 제시는 진행된 바 없다. 영상은 서사물로 영상 콘텐츠의 매력은 스토리텔링에 의해 결정된다. 모바일 과학기술 영상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레

거시 미디어 영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여가오락용으로서 다른 지향점을 가진다. 따라서 과학기술적 소재와 모바일 매체의 특성을 매력적으로 다루는 스토리텔링에 전략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글로벌 과학기술 관련 채널의 선도그룹을 사례로 하여 유형 및 스토리텔링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과학기술 영상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모바일 영상의 특징과 과학기술의 흥미성

모바일 영상 콘텐츠는 대체로 이동 중 짧게 즐길 수 있는 숏폼(Short-form)의 스낵 콘텐츠로 압축적이고 느슨한 구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는 영상의 길이도 최대 15분이다. 또한 유튜브 영상이 조회 및 공유되기 위해서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가 필요하다[3]. 따라서 극적인 구성과 사건 전개 보다는 소재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유익성과 흥미성이 동시에 추구 되어야 한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영상 콘텐츠 또한 흥행을 위해서는 유익한 과학기술적 소재가 흥미성 위주로 다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과목 또는 분야에 대한 흥미 위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과목 또는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는 측정되지 않았으며, 흥미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과목이나 주제와 함께 과학기술이 제시되는 맥락이나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흥미를 조사한 연구에서 또한 과학기술의 특정 주제에 대한 선호는 발견

되지 않았으며, 맥락과 활동에 따라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5].

표 1.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의 차원

차원	차원 설명
주제 (Topic)	특정 과목(subject) 또는 주제(topic)에 대한 흥미
맥락 (Context)	주제(topic)가 제시되는 특정 맥락(context)에 대한 흥미
활동 (Activity)	주제(topic)와 관련하여 수행할 수 있는 특정 활동(activity)에 대한 흥미

II. 유형과 스토리텔링 전략

유튜브의 과학기술 카테고리에서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350만 명 이상의 1위부터 30위까지의 채널 중 영어권 국가의 채널은 25개로 언어적 장벽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비영어권 국가의 채널 5개 또한 2억 명이상이 사용가능한 힌디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로 제공된다. 분석 편의를 위해 영어 또는 언어사용 없이 진행되는 채널 중 브랜드채널을 제외하고 22개 채널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과학기술의 흥미성은 맥락과 활동에 따라 나타나므로, 채널에서 다루어지는 과학기술 소재를 맥락과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비평형', '해설형', '활동형'의 3가지 유형의 채널로 구분할 수 있다. 3개 유형 중 한 개 유형에 상위 또는 하위 순위의 채널이 밀집되어 있지는 않아 특정 유형에 대한 구독 선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과학기술 유튜브 채널의 유형 분류

유형	개수	주요맥락	주요활동
비평형 review	6	일상에서 접하는 과학기술적 기기, 기구 및 시스템에 대한 속담과 이해	토론하기 평가하기
해설형 explain	6	자연과 기술에 대한 정서적 경험의 확장	정보수집 습득하기
활동형 activity	10	지적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연구	실험하기 제작하기

최신 전자기기를 평가하고 리뷰하는 '비평형'과 과학기술의 현상과 원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해설형'은 언어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활동형'의 경우 실험과 제작 과정을 볼거리로서 제공하여 언어의 역할이 적고 시각적 역동성이 있으므로, 영상 매체적 장점을 부각할 수 있으며, 전시 및 축제 등 공간 콘텐츠로의 재매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0개의 '활동형' 채널을 다시 세분하면, 라이프 해킹형, 소품제작형, 파괴형, 탐구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10개의 채널은 제작 및 실험 등의 과학기술과 관련 활동을 주요 소재로 하여 영상을 제공하였는데, 각 채널들은 정형적인 포맷의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 확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년간 주당 1-2개의 영상을 업로드 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한 소재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활동형 채널들의 스토리텔링적 특징은 우선 내용적으로 일상적이고 사소한 물체, 상황, 환경을 다루며 이와

대조적으로 전문적인 과학기술적 방법을 통해 접근한다는 것이다. 형식면에서는 대부분 5-10분 내외의 하나의 영상에서 하나의 상황이 종결되며, 병렬적 또는 압축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레이션을 통한 설명보다는 역동적 활동을 영상이미지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클로즈업 또는 슬로우모션 효과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표 3. 활동형 과학기술 채널의 세부 유형과 스토리텔링 특징

세부 유형	내용(story)	표현(telling)
라이프 해킹형 life hacks	일상에서의 사소한 상황을 해결하는 기발한 팁과 제작 과정	3~10개의 제작 영상을 나열식으로 병렬 연결 5분 또는 10분 길이
소품 제작형 prop making	픽션의 무기류를 사용 및 작동 가능한 현실물로 제작하는 과정	영상 당 1개 소품 제작 후 사용테스트 10분 내외 길이 클로즈업, 슬로우모션
파괴형 destruction	일상적 물건을 특정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괴	영상 당 1개 물체 파괴 5-8분 내외 길이 통테이크
탐구형 Investigation	사소하고 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적 관찰과 발명	영상 당 1개 주제탐구 7-8분 내외 길이 클로즈업, 슬로우 모션

IV. 결론

국내 과학기술관련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제작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국제적인 수요와 수익성이 확보된 유튜브의 과학기술 관련 인기 채널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존의 학술 및 산업적 분류가 아닌 흥미 요소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중 언어 의존성이 낮은 활동형 유튜브 채널의 스토리텔링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영상형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시 벤치마킹 및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년 콘텐츠산업 전망, 2018.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안), 2018.
- [3] Haridakis, P., Hanson, G., "Social Interaction and Co-Viewing With YouTube: Blending Mass Communication Reception and Social Conne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Vol. 53, No. 2, pp317-335, 2009.
- [4] Krapp, A., Prenzel, M., "Research on Interest in Science: Theories, methods, and find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 33, No. 1, pp27-50, 2011.
- [5] Häußler, P., "Measuring students' interest in physics: design and results of a cross-sectional study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Vol. 9, No. 1, pp79-92, 1987.